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중 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제34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5월 6일(화) 저녁 ~ 9일(금) 새벽, 본당에서
5월 7일 수요일부예배는 갈릴리홀에서, 나머지는 평소와 같이
5월 6일(화) ~ 8일(목) 성경연구원은 전체가 휴강기로

제 34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가 5월 6일(화)부터 5월 9일(금)까지 중헌교회당에서 열린다.

전국 80여개 노회에서 4,000여명의 목사, 장로들이 모여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의 갱신과 부흥을 위해',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북한동포와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있고 정치인들은 갇은 비리에 연루돼 있어 국민들은 좌절과 허탈 속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교회는 성장정체 속에서 바른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기도회는 더욱 중요하다. 바로 기도할 때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도회는 5월 6일(화) 저녁집회를 시작으로 5월 9일(금) 새벽까지 회집된다.

이 기간 중 모임은 매일 새벽(오전 5시 30분), 오전강의(오전 10시~12시), 오후강의(오후 2시~4시), 저녁집회(오후 7시~9시) 등 4차례의 집회로 이어진다.

당회장 김창인 목사는 5월 7일(수) 저녁 집회에서 설교를 하고 저녁 집회 때마다 우리 교회의 찬양대가 찬양을 하게 된다.

우리 교회는 역삼동에 교회당을 지은 이래 매년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이 일은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니지만 교단적 차원의 협조와 도움을 위하여 흔쾌하게 허락하고 있다. 기독교신문 4월 30일자 사설에서

도 우리 교회의 입장에 대하여 감사의 글을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전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여야겠다.

기간중 수요일부예배는 장소를 바꿔 갈릴리홀에서 오전 11시에 드리고, 새벽기도회는 평소와 같이 갈릴리홀에서 오전 5시에 실시하며, 수요일부예배는 오후 7시에 본당에서 함께 드리게 된다.

또한 목사장로기도회 관계로 성경연구원 5월 6일(화)~8일(목)의 모든 반이 잠정 휴강하게 된다.

전도위원회에서 전도상 시상하기로

전도위원회에서는 성도들의 전도의욕을 고취시키고 전도하는 교회로 자라나기 위한 목적으로 성도들 중 전도에 열심있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가려 시상하기로 했다.

시상은 1년에 한번, 11월중에 하며 1년동안 전도의 실적을 보아 우수자 3명과 1명 이상이라도 전도한 모두에게 시상할 계획이다.

금주의 교구 영성훈련

5월 8일(목) / 9 교구

담임목사에 김성관 목사 청빙키로

지난 5월 1일 정기당회에서 청빙 결정

다음 주일(5월 11일) 공동의회에서 처리

교회는 지난 5월 1일 정기당회를 열고 김성관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것을 결정했다.

김 목사는 연세대학교 사학과(B. A.)를 졸업하고 대한제국 기획관리실, 동양그룹 회장 비서실 등에서 근무하다 1970년 이민. 1973년 미국 리그온행(U. S. League)에서 15년간 있으며 조지아대학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도 받고, 재정담당 수석 부사장으로 있었다. 1989년 금융자문회사를 창업하여 이를 경영하다가 1991년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입학, 1994년에 졸업(M. Div.)했다. 졸업시 논문 제목은 '한국교회와 선교'였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트리니티신학교에서 선교학을 전공하여 신학석사(Th. M. in Missiology) 학위를 받고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김 목사는 한국에서 총신신대원을 다니면서 천우교회에서 전도사로 시무했고, 졸업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평화교회(시카고노회)에서 교민의 복음화를 위한 전도와 교육, 선교 사역을 해왔다.

1994년 7월 시카고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1995년 5월 시카고노회에

서 목사안수(서울 동평양노회 소속)를 받았다.

교회는 당회에서 새 담임목사 청빙이 결정됨에 따라 오는 5월 11일(주일) 4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열어 당회장 청빙을 묻게 된다.

이후 절차를 밟아 당회장에 취임하고 위임식을 가지게 된다.

공동의회 소집 공고

- 일시: 1997. 5. 11 4부예배후
- 장소: 본당
- 안건: 담임목사 청빙의 건

—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 수집 —

- 수리남/안식절 선교사
- 돌보기: 현지인들 성경읽기에 필요함.
- 볼펜: 집에서 쓰지 않는 볼펜
- 피리 20~30자루: 인디언 주일학교 사역에 필요함.
- 수단/김영대 선교사
- 의류: 난민 사역에 필요함.
- ※ 수집처: 선교위원회 (선교관 406호 문의 구내 357번)

오늘 갈릴리홀에서

‘새가족환영회’ 합니다

시간/ 오후 2시 30분 장소/ 갈릴리홀
참석대상/ 2월 16일 ~ 4월 27일 등록한 성도 및 인도자, 미등록자, 교구장, 교역자, 지역장, 교구일꾼

우리는 한가족!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현대를 풍자했던 어느 사회학자의 말을 기억합니다. 이 아름다운 5월의 봄날, 소외하고 소외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런 바람으로 저희 교회에 출석만 하고 계시는 귀한 분들과 지난 2개월 동

안 등록하신 새가족 여러분을 5월 4일(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 지하에 있는 갈릴리홀에서 모시고 새가족환영회를 갖고자 하오니 참석하시어 함께 지체되는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 4:8)
새가족부 부장 강모용 장로

97년도 제2차 학습, 세례식 안내

오늘부터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요일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재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5월 4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이국병 목사)	교육관 314호	세례란? (김필수 목사)	교육관 307호		
	2교시 16:00~16:50	성경개요 (김재철 목사)	교육관 314호	교회론 (전형준 목사)	교육관 307호		
5월 11일 (주일)	1교시 15:00~15:50	구원론 (한근수 목사)	교육관 314호	구원론 (현상민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란? (김찬곤 목사)	교육관 309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5월 18일 (주일)	찬양예배			학습, 세례식(본당)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불의한 자에 대한 성도의 태도

(시편 49:1-20)

시편 49편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한 사람들이 누리는 부귀영화가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를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고라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며 저작 환경은 사울 왕이 다윗 장군을 시기하여 반역자로 몰아 죽이려고 할 때입니다. 사울 왕의 신하들 가운데는 다윗 장군이 의인인 줄 알면서도 마치 다윗 장군이 못된 짓을 한 것처럼 거짓 보고를 하고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 바치는 것처럼 아침을 하며 사울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 고라 자손은 다윗 장군을 따라 도망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악한 무리들이 오히려 불쌍히 여겨 집니다. 사울 왕의 행위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무리들이 오늘은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무서운 형벌을 받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의 세 아들과 더불어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윗 장군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 장군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무리들은 취구멍이 어디냐고 숨어버렸습니다.

이에 고라 자손이 도망가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성도를 향하여 교훈하는 내용의 시를 쓴 것이 시편 49편입니다.

1. 진리 앞에서 성도가 취할 태도

(1) 바로 깨닫고 전해야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은 자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진리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기나긴 인생의 여정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또한 인생의 먼 길을 가도 피곤을 느끼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며 흉악한 원수의 울무에 빠지지 않는, 좌우로 날이 선 것을 가진 승리자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앞에 누가 있는지를 막론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도망가는 다윗 장군을 따라가는 고라 자손은 한없는 고생 가운데서도 늘름하게 외칩니다. "만민들아, 세상의 번부귀천을 막론하고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를 좇아오며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도 들으라. 높고 낮은 사람, 잘살고 못살고의 차이를 막론하고 진리의 교훈을 듣는 사람은 화를 면하고 복을 받는

다. 만약에 진리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면 복은 고사하고 멸망을 받을 것이다"라고 엄격하고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2) 순종함으로 전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먼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되지만 무엇보다 순종함으로 전해야 효과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도 행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먼저 깊이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깨달아지면 그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할 때 힘이 있습니다.

(3) 바로 들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한 것을 알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요 일용할 양식이요 원수를 이기는 무기요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입니다.

둘째,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이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죄악이 얼룩진 결레조각과 같습니다. 또 사람 중에는 일 분 후의 일도 아는 이가 없고 양심의 등불이 꺼진 소경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순종하기로 결심하며 들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되 깨달아지는 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면 악마는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2. 불의한 자 앞에 성도가 취할 태도

(1)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죄악을 떠 먹듯이 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시적으로 얻은 권세를 가지고 의인을 핍박하고 공의를 무시하며 성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성도는 살면서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포위를 당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불의한 부자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2)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불의한 부자는 재물을 가지고 호의 호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이 많고 권세가 당당해도 자기의 형제 하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결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문제는 돈을 주고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전에는 감히 건질 자가 없습니다. 범죄한 인생은 천하를 가지고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하게 돈을 모으기 위해 악독한 짓을 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험하고 성도는 억울한 핍박을 받으며 살기가 힘들어도 아침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재산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을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주고 깨닫고 회개하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3)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인이 아무리 억울하게 도망을 다녀도 불의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가는 방향의 마지막 정거장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을 데리고 가는 인도자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부자를 보며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4) 정직할 것을 권면해야 됩니다

불의한 세력으로 쌓아놓은 재산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끝까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악한 권세를 가진 불의한 사람이 아무리 돈을 모아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에는 어두움의 세력이 무너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빛이 비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을 따라다니던 신하들이 다 도망가버리는 날 다윗 왕은 예루살렘 궁전으로 돌아오고 그때 고라 자손도 따라옵니다. "야! 이 날을 기다렸더니 오기는 오는구나. 밤은 아무리 길어도 아침이 오기는 오는구나. 온 백성이 우리를 영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구나."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두움의 세력이 이 세상을 덮었어도 아침이 되는 날은 기어이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불의한 사람들이 세력을 휘두르고 잘살아도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 회개하여 정직하게 살 것을 권면해야 됩니다.

3. 성도가 나아가야 할 길

성도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생명을 지키시는 줄 믿고 언제든지 바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역자는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되고 성도들은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됩니다. 또한 들을 뿐 아니라

순종하며 실천해야 됩니다. 성도는 오직 불의한 자들의 죄악에 때문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므로 충성하면 오늘은 비록 조롱을 받아도, 억울한 핍박을 당해도 잠시 후면 하나님의 영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그날에는 육신도 평안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영혼도 평안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만하고 사치한 불의한 무리들을 꿈에라도 따라 가면 안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험하고 성도는 억울한 핍박을 받으며 살기가 힘들어도 아침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재산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을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주고 깨닫고 회개하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고라 자손은 아무런 죄도 없이 다윗 장군을 따라다니며 갖은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원수들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장군을 따라 궁궐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만민의 존경을 받으면서 세상 떠날 때까지 그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세상을 떠나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습니

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장군과 고라 자손을 지켜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이 처한 곳은 한없이 불의하고 어두운 곳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한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의한 자를 따라가지 말고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 어린이주일을 맞으며 ◆



어린이는 가정의 거울

박노철
(전도사, 소년부 지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 첫주는 특별히 어린이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하는 어려운 신학적 주장을 펼치지 않더라도 어린이는 우리에게 너무 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가정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는 그 가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창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어린이들의 성격과 생활규범은 그들이 가장 오래 몸담고 살아가는 가정 환경의 결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보아 가정을 알 수 있고, 다시 가정을 살펴봄으로써 어린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일학교 교사님들께서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의 환경

지정 또는 감각을 빼앗겼을 때 대부분의 동물만도 못한 존재가 되고 만다.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것이 환경이니만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은 충현교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꿈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앞으로 도래할 21세기 세계의 희망입니다. 이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의 90%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가정 분위기가 그 어린이의 미래와 충현교회의 미래,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말해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집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많은 돈이, 높은 명예가, 또는 탄탄한 권력

왜냐하면 좋은 환경, 건강한 환경은 이런 것들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없어서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는 핑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환경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분위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을 살펴보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한 어린이의 모든 문제점은 그 아이가 접하고 있는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그 환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며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건전한 가정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하면서 건전한 아이들의 모습을 강요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불란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베루이라는 깊은 숲 속에서 열한 살의 소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소년은 주로 열매나 나무 뿌리, 짐승들을 잡아 먹었으며 옷을 입지 않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짐승들과의 투쟁 생활을 말해 주듯이 온 몸에 무수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소년의 눈은 설새 없이 주위를 살피는 안정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주었고 귀의 고막이 상처로 인해 파괴되었는지 권총을 발사하는 소리에도 무감각했습니다. 그 소년은 사람을 두려워하여 가끔 빨작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며 울 안에 갇힌 동물처럼 날뛰었습니다. 그 소년을 담당한 의사는 5년간의 치료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람은 환경으로 인하여 그의 특유한 기능이나

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과거 역사를 들추어 보면 차라리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환경, 건강한 환경은 이런 것들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없어서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는 핑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환경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분위기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부모님의 모습보다 더욱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은 없습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저체로운 자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에 대한 진정한 존경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가득한 가정, 또한 그 경외함을 가정예배로 표현하는 가정, 바로 이 가정이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환하게 밝히는 꿈이며 희망이라는 사실을 만물이 숨쉬는 5월 가정의 달에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 부서를 찾아서 / 교회학교 유아부 ◆

주일예배와 동일한 순서로

신앙고백, 한 찬송을 한달동안 불러, 찬양대도 있고 유아분야의 전문적인 교사들 많이 있어

만 3-4세의 어린아이들이 모이는 유아부(부장 문흥구 장로, 지도 계선화 전도사)는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자'를 주제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빌 1:21)'는 말씀을 주제 성구로 하고 있다. 유아부는 1부 예배를 8시 50분 그리고 10시 50분에 2부 예배를 교육관 212호에서 드리고 있다.

유아부의 예배는 대예배와 같이 묵도와 신앙고백으로 예배가 시작된다. 그리고 찬송시간에는 찬송가를 부른다. 어른들은 이것이 특이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유아부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영아부(만1-2세)에서는 찬송가를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어른들처럼 매주 다른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찬송을 정해 한달동안 율동과 함께 부르게 된다. 이것은 아이들이 찬송가에 익숙해지게 하고 또한 커서도 그 찬송을 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현금 시간이 지나면 찬양대가 찬양을 한다. 이것 또한 영아부에 없었던 새로운 것으로 아기였을 때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찬양대의 찬양이 끝나면 계선화 전도사의 설교가 시작된다. 내용들을 그림이나 손 동작으로도 전하신다. 그후 찬송과 묵도로 예배를 마친다.

'예수님을 만나요'라는 4월의 표어를 모두가 외친 후 그 주간의 생일 맞은 아이를 축하해 주고 새로운 친구들을 환영해 준다. 다음은 놀이 지도시간이다. 이 시간은 아이들과 엄마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같이 서서 운동도 하고 그 장소 안에서 게임도 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겐 즐거운 시간이다. 이 시간의 놀이 지도는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한다고 한다.

믿음반과 소망반은 만3세, 사랑반과 충성반은 만4세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반 중심으로 분반 공부가 이루어진다. 유아를 위한 성경 공부책으로 분반 공부를 하는데 이 책은 대상인 유아들에 맞게 오늘 주제를 그림으로 그리고 만들기도 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다 완성하지 못한 것들은 집에서 엄마와 같이 완성하여 그 다음 주일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갖는다.

이로써 아이들은 주일 유아부 예배를 마친다.

지난 4월 27일(주일) 유아부에서는 새 친구 초청 잔치가 있었다. 사실상은 4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4월 마지막 주일인 4월 27일에 총 결산을

한 것이다. 한달동안 등록한 아이는 약 16명 정도이다. 이 아이들은 거의 엄마가 교회에 다니길 확신하고 등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반에 편성이 되어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게 된다.

유아부의 재적자수는 364명이고 출석자수는 249명이다. 이는 비출석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출석자의 수가 300명이 넘도록 하는 것이 유아부의 기도 제목이라 한다. 유아부에 더욱 아이들이 많이 참석하여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고 자라길 기도 부탁한다.

(글/박주영 기자, 사진/이운구 기자)



에바다부 수화교실 개강

에바다부에서는 수화교실을 개강한다. 관심있는 성도들의 참여를 바란다.
과정: 초급, 중급, 고급, 통역(3개월)
시간: 주 일 오후 3시~4시 30분(A반)
수요일 오후 1시~2시 30분(B반)
장소: 에바다부실(교육관 109호)

선교연구원 토요 강좌 안내

5월 10일(토) 강의부터는 단기선교 훈련과 연계되는 강좌를 개설한다. 따라서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취재수첩

중등2부에서 성경퀴즈대회 본선이 열렸는데 ...

중등2부에서는 지난 4월 27일 성경 퀴즈 대회 본선이 있었다.

4월 20일 지원자에 한해서 1/4분기 공과 내용을 가지고 필기 시험으로 예선을 치렀다. 그 중 8명이 본선에 올라 1/4분기 공과 내용과 일반 상식 문제 등을 맞추었지만, 본선 참여자 외에 모든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퀴즈도 마련해 전체 학생들이 좀더 성경 말씀에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유년부의 학부모초청좌담회에서 어떤 말들이?

지난 4월 27일(주일) 유년부에서는 '자녀 신앙 교육과 영혼 구원'이라는 주제와 담부 3:15-17의 말씀을 갖고 학부모 초청 좌담회를 열었다.

이것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 방법과 생활 현장에서 아이들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실천하는지 등에 대해 학부모들의 발표로 시작되었다. 뒤이어 교사들은 아이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올바른 생활을 하도록 학부모들이 지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임무천 장로는 학부모들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 줄 것과 유치원에서부터 배운 기본적인 도덕 생활들이 생활에서 잘 나타날 수 있게 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런후 염현일 전도사는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본보기가 되어 자연스럽게 신앙 교육이 되도록 해달라는 말로 학부모 초청 좌담회를 마쳤다.



소년부에서 새친구초청잔치 과연 어떻게 했을까?

소년부에서는 4월 27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코자 새친구 초청 잔치를 개최했다. 이를 위해 한달 전부터 소년부 아이들은 전도할 친구를 정해 기도하였고 선생님들은 근처의 학교를 다니며 노방전도를 하는 등 많은 기도와 시간을 투자해 준비를 했다.

새친구 초청잔치는 예배가 끝난 후 시작되었다. 먼저 찬양대의 찬양과 싱어 룡팀 찬양으로 주님께 마음을 열고 환영의 노래로 새친구 환영의 시간을 가졌다. 찬양을 드린 후 면회회에서 준비한 판토마임 'HANDS' (하나님이 창조하신 손은 사랑과 희망을 주는 손이었는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 결국엔 손으로 예수님까지 못박았으나 주님은 다시 인간의 손을 이끌어 주님이 원하시는 손으로 만드신다는 내용)를 공연하였다. 그 후 모두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결단의 시간으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이날 새로 전도되어 나온 친구들은 소년부 자체 새신자부에서 한달간 공부를 하고 그 후 새반으로 등반하게 된다.

소년부에서는 많은 기도와 노력으로



얼은 새친구들이 계속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더 많은 관심과 기도로 이끌어 주길 바란다.

▶ 청년2부는 5월 11일(주일) 오후 12시 30분에 교육관 514호에서 김수지 교수의 '행복한 가정생활'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갖는다.

▶ 장년3부는 5월 11일(주일) 오후 12시 30분 교육관 307호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갖는다. 강사는 구명신 전도사이다.

▶ 새가정부는 5월 11일(주일) 오전 10시 30분에 교육관 201호에서 박형용 목사(장년1부 지도)를 강사로 '내가 가정을 새로 꾸민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글/박주영 기자, 사진/이운구 기자)

97 중현 젊은이와 함께

복음의 신앙을 위해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중현의 젊은이들이 움직인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구체적인 행동강령 / 목표 2000-주수금작전

'2000·비전·교회사랑·연합·부흥'의 목표를 가지고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나아가는 일이다.

청년교구 소속 대학부, 청년1·2부가 함께 연합하여 중현의 젊은이들이 함께 나갈 비전과 방향을 위하여, 또 2000년대를 바라보며 사역을 감당할 2000명의 사역자를 얻고 이를 위해 대학부, 청년부의 부흥을 목표로, 또한 이를 통한 교회사랑의 모습이 젊은이를 통해 나타나기를 바라며 5월 한달동안 여러가지 행사를 하며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중현 젊은이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기회로 삼는다는 일종의 '연합·부흥·갱신' 운동이다.

이 일을 바로하기 위해서 '주수금작전'이라는 전체 행동강령하에 움직이고

있다.

즉, 주일저녁찬양예배에 전원 참석하여 예배후 젊은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수요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금요일집회에 참석하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5월 한달동안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며 진행하는 의미있는 행사들을 펼쳐 나가게 된다.

이번 일은 교회 내의 20대, 30대 젊은이들을 전부 모아보는 일이다. 20대, 30대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다른 차원의 새로운 장을 펼칠수 있을 것이다.(형)

97 중현 젊은이와 함께

목표 2000-주수금작전

중현 젊은이들이 주관하는

알뜰시장이 열립니다

오는 5월 24일(토), 오전 11시~오후 5시

주린 북한주민 돕기와 해외 여름 단기선교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청년부와 대학부에서 5월 24일 토요일 알뜰시장을 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부탁드립니다.

5월 11, 18일(주일)에 여러가지 생활용품들을 기증받습니다(교육관 1층 테이프 보급소에서). 물론하지만 필요치 않아

그냥 보관하고 계신 물건이나 상품가치가 있는 거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특별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운영하시는 성도님들은 각종 기증품으로 후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품목은 신발, 옷, 각종 악세사리, 넥타이, 수건, 양말, 액자, 화장품, 가전제품, 각종 생활용품, 신앙서적, 테이프



충성의 언덕(忠峴)에 젊은이들의 함성이!

장 봉 생

(목사, 청년교구·대학부 지도)

1. 오른편을 주목하라

중현의 20-30대 젊은이들이 주일오후 찬양예배에 오른편 좌석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통성기도할 때 오른편이 뜨겁다. 수요일 새벽기도에 오른편이 뜨겁다. 직장과 학교 가기 전 충성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금요일 찬양집회에도 오른편 청년교구 좌석이 뿔뿔하다. 두 시간의 기도와 찬양은 젊은이들에게 함성이라 할 수 있다. 주수금(主水金) 작전은 기도운동이고 부흥운동이다.

2. 화요일 취침 비상이 걸렸다

잠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화요일 밤은 비상사태에 돌입한다. 다음 날 새벽기도에 나가려면 신경쓰고 자야 한다. 먼 곳은 4시부터 출발해야 한다. 아예 교회 근처 친구집에서, 교회 이곳저곳에 담요를 편 흔적이 있다.

3. 본당을 채우라

주일 오후 찬양예배 후, 젊은이들의 기도함성이 시작된다. 기도제목은 '부흥'이다. 나와 우리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민족의 부흥이다. 본당을 가득 채워서 지붕 형광등이 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4. 중현교회에서 훈련받으면 틀림없다

소문이 퍼지고 있다. 중현교회에 젊은이들이 부흥되고 있다는 소문이다. 화인과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방문자들이 급증한다. 우리는 이런 소문을 더욱 기대하고 있다. "중현교회에서 훈련받으면

틀림없다"

5. 가정의 달? 5월은 중현 젊은이 기도의 달!

5월은 무슨 달인가? 중현 젊은이 기도의 달이다. 5월 한달간 평생 기도를 다 해놓을 작정이다. 부흥이 일어난 시대의 특징은 부흥 직전에 확신기도, 연합기도, 고집기도가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 젊은이들의 기도가 그렇다. 확신을 가지고 연합하여 고집스럽게 기도할 것이다.

6. 어른들은 안심하라, 아이들은 지켜보라

교회의 미래는 10년 싸움이다. 한해 농사 잘못지으면 10년 후유증이 있고, 10년 농사 잘못지으면 그 교회는 망한다. 어른들은 중현의 미래를 젊은이들에게 걸어두어야 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선배들에게 걸어두어야 한다. 60-70년생들의 함성은 중현(충성의 언덕)에서 시작되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7. 범생이들은 다나오라

'조용히 혼자 믿고 싶다. 나는 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범생이들은 다 나오라. 젊은이들끼리 모인 곳은 더 은혜와 역사가 뜨겁다. 부흥의 흐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자. 기도 대장되고, 부흥 특공대가 되자. 중현땀방의 목은 돌도 나오고, 굴러들어와 박히지 못한 돌도 나오라. 함께 모여 돌들로 소리지르게 하자. 돌 건물에서 돌들의 함성을 지르자.

오늘(5월 4일)

오전 8시~오후 3시

본당 앞 광장에서 헌혈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헌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